

보도일시 (인터넷) 2026. 8. 4.(화) 11:00
(지면) 2026. 8. 5.(수) 조간 배포 2026. 8. 4.(화) 06:00

“재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

-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개정
- 김 종자 등 7개 복구 품목 신설, 우럭·광어 등 18개 품목 단가 인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5일(수)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이하 “복구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에 개정된 복구단가 고시에서는 어업인들이 그간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해왔던 김 종자(500g 1상자, 3,825원) 등 7개 품목을 신설하고, 우럭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우럭(큰 고기 1마리, 2,817원)은 전년 대비 단가가 38% 인상되었으며, 광어(작은 고기 1마리, 836원 / 큰 고기 1마리, 4,920원) 역시 작은 고기는 12%, 큰 고기는 15% 각각 인상되었다. 총 18개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 파악하여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담당자	사무관	김 환 (051-773-5392)
			주무관	남정희 (051-773-5621)

참고

2026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조정 결과

※ 품목 신설 7건(김 종자 등), 단가 인상 18건(조피불락, 넙치 등) 평균인상률 44%

(단위: 원)

품목	현재 단가	신설 단가	비고
문어통발-동해	-	14,790	
새고막채묘(뱃줄고정식)-100m당	-	541,875	
미역 건조기(kg)	-	10,880	
수중펌프(3마력)	-	1,025,483	
사료살포기-자동형	-	1,870,000	
김(종자수량 1kg/2상자)	-	7,650	
동갈돔돔(큰고기)	-	7,197	

(단위: %, 원)

품목	현재 단가	인상 단가	인상률
유자망: 오징어-동해(1척기준:50폭)	101,000	127,500	26.2%
유자망: 양미리-동해(1척기준:20폭)	280,000	306,000	9.3%
통발: 붉은대게-동해(1척기준:1,200개)	11,500	19,375	68.5%
통발: 굴뱅이-동해(1척기준:2,000개)	5,000	13,025	160.5%
양식어업용저온저장시설(4.2m×2.4m)	2,480,159	5,352,103	115.8%
바지락(각장 1-2cm, 3톤)-살포식	4,524,192	5,684,070	25.6%
지중해담치(각장 2~3cm 이상, 250연)-수하식	231,400	278,350	20.3%
가리비(각장 5-7cm, 15천미)-채통식	1,550,000	1,800,000	16.1%
명게(종묘량 14,200m)-수하식,줄	3,407,053	4,512,736	32.5%
명게종묘(종묘량 50,000m)-연승수하식, 줄	11,996,667	15,889,917	32.5%
넙치(광어, 작은고기)	747	836	11.8%
넙치(광어, 큰고기)	4,280	4,920	15.0%
조피불락(우럭, 큰고기)	2,045	2,817	37.7%
참조기(큰고기)	1,358	2,824	108.0%
메기(큰고기)	1,000	1,300	30.0%
자라(작은고기)	4,000	5,200	30.0%
자라(큰고기)	42,000	51,000	21.4%
우렁이(각고1.3cm내외)	3,995	4,895	22.5%